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

- <방한림전>의 서사와 인물을 중심으로 -

곽현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방한림전> 서사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 양상
- III. <방한림전>에 나타난 금기 위반의 의미
- IV. 맺음말

【 】

금기는 부정한 무엇인가로부터 개인과 사회, 혹은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다. <방한림전>은 천상계의 인물인 문곡성이 금기를 위반하여, 그 징벌로써 방관주라는 인물로 속세의 삶을 살게 되는 징벌담이다. 금기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면서 또한 위반하도록 유혹한다. 서사에서 금기가 등장하면, 그 뒤로 금기를 위반할 가능성과 금기를 수행할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허용된 범위와 세계에서 순응하고 산다면, 서사 속에서 그 어떤 금기 위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사 주인공의 욕망은 늘 그 허용범위를 넘어서 금기와 충돌한다. <방한림전>의 주인공 방관주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에게만 허용되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로 욕망한다. 그리고 <방한림전> 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결국 금기를 위반하고 마는, 금기 위반자로서의 방관주의 고통스러운 삶이 잘 나타나 있다.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는 유교 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하면서도,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금기가 가득한 세계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해주고 있다. 여성 독자들은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 속에서 금기를 위반하고 현실을 역전시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 남북을 입고 사회진출을 이루어내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방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림전>은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금기 위반의 표지가 된다.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를 정치하면서도,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의 삶을 긍정해주는 양가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여성영웅소설, 방한림전, 금기, 위반, 욕망

I. 머리말

인간은 자유를 꿈꾸지만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것’에 얽매인 채 살아간다. 그 ‘어떤 것’은 삶에서 미신, 도덕, 관습, 규칙, 규범 등의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검열하도록 만든다. 성/속, 삶/죽음, 문명/야만, 정상/비정상 등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구분 짓고, 수용할 것과 배제할 것을 가려내 질서를 세운다. 지키는 자에게는 포상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인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면 의식까지 조종하는 그 ‘어떤 것’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금기’¹⁾이다.

인간들은 태어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금기와 마주한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100일간 마늘과 쑥만 먹어야 한다.”는 금기에서부터 “밤에는 손톱을 깎아서는 안 된다.”, “문지방에 앉아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일상적인 금기, 그리고 “동성(同性)끼리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사회적인 금기까지. 금기는 인간과 늘 함께 해왔다. 인간의 역사는 곧, 금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 터부(Tabu)는 폴리네시아 말로, 사람뿐만 아니라 특성의 원천인 장소와 대상과 임시적인 상태 등 모든 것을 말한다. 터부는 이와 같은 특성에서 도출되는 금지이기도 하며, 결국 터부는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신성한’,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고귀한’ 등과 동시에 ‘위험한’, ‘불결한’, ‘끔찍한’ 등의 뜻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일컫는다. (프로이트, 이윤기 옮김, 토렘과 터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pp.33-41.)

‘금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발견된다. 인간의 삶 도처에 존재하며 인간들의 행동, 사고방식 등에 영향을 끼친다.²⁾ 그리고 금기는 인간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인식체계³⁾이자 행동규율이다.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규정한 ‘금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를 살았던 인간들이 무엇을 ‘금기’로 규정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금기’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문학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금기’를 읽어냄으로써 당대 사람들의 삶과 욕망, 갈등 의식 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간 고찰의 한 일환으로서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여성영웅소설 <방한립전>⁴⁾의 서사를 하나의 금기 서사로 보고,

2) 금기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 해당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맥락에서도 해당 문화권의 고유한 합리성, 논리성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중세의 가톨릭교회는 문란한 성행위를 제한하고 건전한 가족관계 내에서의 출산을 장려하는 성도덕을 확립하기 위해 ‘동성애’, 간음, 간통, 근친상간, 수간 등을 금지한다. (최일성, 『금지과 타부, 혹은 이항대립적 사고의 정치사상적 기초에 관한 연구: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9집,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11, pp.248-255.) 유교전통이 지배하는 농경사회에서 첩의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거나, 형을 형이라 부르는 것은 금기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유목 사회에서는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어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다. 부인의 부정을 질책하고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금기시된다. (연호택, 『이름과 금기』 - 조선대학교 BK21+ 아시아금기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팀, 『언어와 금기』, 역락, 2015, p.134.)

3) 금기는 단순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일상적인 사고 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신념체계이며 판단차원이다. 흔히 신성성이 부여되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물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일상적 판단이 무위화되는 것처럼 문화적 전통이라는 옷을 입은 금기 관련 신념은 심리적으로 신성에 관여되는 신념이나 판단체계처럼 종교적 신성 심리가 동일한 기제로 작용한다. (최상진, 박영창, 박정열, 김효창, 『여성 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수용성 지각 - 성차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BK21+ 아시아금기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팀, 『언어와 금기』, 역락, 2015, pp.171-172.)

그 속에 나타나는 금기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한림전>의 서사 속에는 당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인 금기들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결국 금기를 위반하고 마는, 금기 위반자 방관주의 고통스러운 삶이 잘 나타나 있다.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 속에서 금기 화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양상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당대 사람들이 무엇을 ‘금기’로 규정하고 있었는지, 이 ‘금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당대 사람들의 의식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방관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방한림전> 연구⁵⁾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방한림전>은 필사기가 1900년으로 밝혀져 있는 한글 필사 소설이다. <방한림전>은 남장한 여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고 외적의 침입에 맞서 대원수로 참전하여 공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대봉전>, <황운전>, <홍계월전> 등과 같은 여성영웅소설에 속하며, 동성결혼, 비극적인 결말 등의 특이점으로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작품이다. <낙성전>과 <가심쌍완기봉> 등이 異本으로 밝혀져 있다. 본고에서는 <방한림전>·<낙성전>·<가심쌍완기봉>의 세 이본들 중 선(善)본으로 추정되는 <방한림전>을 통해 논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는 『나손본 필사보고소설자료총서』 11권에 영인되어 있는 <방한림전>(『羅孫本』筆寫本 古小說資料叢書, 11, 보경문화사, 1991.)을 선정하였다.

5) <방한림전>의 인물 형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방관주를 주체적인 여성주의 인물로 보는 견해(차옥덕, 「<방한림전>의 구조와 의미: 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 -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표출 양상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8, 숙명여자대학교, 2000;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泮橋語文研究』 21, 반교어문학회, 2006;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와 그에 반발하여 방관주를 반여성적·가부장제를 옹호하는 남성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보는 견해(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어국문학회, 2001; 김하라, 「<方翰林傳>에 나타난 知己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 2002; 임태용, 「<방한림전>에 나타난 가부장적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가 있다.

II. <방한림전> 서사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 양상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는 ‘a. 금기 갈등 b. 금기 위반 c. 징벌과 금기 재생’의 세 단계로 전개되고 있다. <방한림전>에 나타난 금기 서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줄거리를 서사 단락별로 정리해 금기 서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 중국 명나라 시절, 북경 유하촌에 사는 한 부부가 계속 자식이 없다가 늘그막에 꿈을 꾸고 딸 ‘방관주’를 낳았다.
- ㉡ 딸이 자랄수록 재주와 외모가 보통사람과 달랐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딸의 소원대로 남복을 입혀 기르며, 친척들에게도 아들이라 속인다. (금기 갈등1)
- ㉢ 방관주가 8세 되는 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다. (금기 갈등2)
- ㉣ 그는 자신이 비록 여자이나 처신을 남자로 하였으니 시속 여자의 가부 섬기는 도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는, 과거에 응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금기 위반1)
- ㉤ 병부상서 영의정이 영의정이 필녀 혜빙소저를 두고 방한림에게 청혼하니 방관주는 이를 받아들이고 동성 결혼을 한다. (금기 위반2)
- ㉥ 첫날밤에 방한림은 영혜빙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고백하고는 서로 비밀을 지켜 부모 모르게 부부간으로 지내자고 약속한다.
- ㉦ 방한림은 형주안찰사가 되어 부인과 작별하고 떠난다. 하루는 산수를 찾아 노는데 벽력소리가 나며 큰 별이 떨어지기에 그곳에 가보니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낙성이라 이름 짓고는 양자로 삼는다.
- ㉧ 간신이 득세하여 조정이 어지럽고 복호가 중원을 침공하니, 방관주가 자원하여 출전한다. (금기 위반3)
- ㉨ 정복대원수가 된 방관주는 호왕을 생포하여 항복을 받고 개선하니. 황제는 방원수에게 우승상에 강릉후를, 부인에게는 진국부인을 봉한다.

방공자는 12세가 되어 김추밀의 딸과 결혼한다.

- ㉔ 어느 날 형산의 도사가 찾아와 방승상의 관상을 보고, 40을 살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사라진다. (징별1)
- ㉕ 이후 방관주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되자,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한다.
- ㉖ 황제가 죄를 사하여 준 후, 방관주가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영부인도 병을 얻어 뒤따라 죽는다. (징별2)
- ㉗ 방관주와 영혜빙은 사후 1년 뒤 제삿날에 낙성 부부의 꿈에 나타난다. 두 사람은 사실 천상계의 문곡성과 상아성으로 부부 금슬이 좋아 화락을 즐기느라(금기 갈등3)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금기 위반 4) 벌로써 지상에서 동성 부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징별3)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방한림전>의 서사는 크게 방관주의 내재화된 욕망이 사회적 금기에 부딪히는 도입부(㉑~㉔), 방관주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 금기를 훼손하게 되는 전개부(㉕~㉗), 훼손당한 금기가 금기 위반자를 징벌함으로써 훼손당한 부분을 재생하려는 결말부(㉘~㉗)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주인공 방관주의 금기 위반 이후에 반드시 징벌이 따라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말부의 가장 마지막 부분 ㉗ 단락은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방한림전>의 서사는 천상계-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면 천상계의 문곡성(방관주)이 금기를 위반하여, 그 징벌로써 지상계로 내려와 방관주로서의 삶을 살다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㉗ 단락에 따르면 <방한림전>에 나타나는 방관주의 삶 자체가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한림전>의 서사는 천상의 금기를 어긴 '금기 위반자의 징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단계별로 <방한림전> 속에 내재된 금기 갈등, 위반, 그리고 징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방관주’의 내재화된 욕망과 금기 갈등

금기는 문명과 야만, 이성과 비이성, 정상과 비정상,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등 인간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누어둔 경계선이다. 무엇을 비정상으로 규정해 경계선 바깥에 놓을 것인지는 당대 사회의 통념과 그 안에 내재된 인간들의 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들은 태어나 이러한 금기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하는 주체로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진다.

<방한림전> 본문에서 금기는 유교사회의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道理)”라는 말로 표현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도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금기를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영역을 유지한다. <방한림전>에서 ‘금기’는 성스러운 것, 즉 유교 사회의 규범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유교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위협하게 만드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을 배제⁶⁾하는 논리이다.

<방한림전>에 등장하는 금기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바로 욕망이다. 질서와 안정을 이룩한 문명사회와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언제나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개인적인 ‘욕망’⁷⁾이다. 인간 사회와

6) 터부의 의미는 서로 상반된 두 방향으로 향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신성한(heilig)’, ‘봉헌된(geweiht)’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unheimlich)’, ‘무서운(gefährlich)’, 금지된(verboden), 순수하지 못한(unrein) 등을 의미한다. (프로이드, 앞의 책, p.33.)

7) ‘금기’라는 외피 속에 잠복돼 있는 ‘욕망’이라는 코드는 ‘선과 악’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과도 맞물려 있다. ‘선과 악’은 으레 인간의 내면의식에서 충돌하지만, 타자와의 가치 충돌,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대를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이데올로기와 의 충돌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금기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담긴

문명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고 개인적인 이기심을 조절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되지 않는 적나라한 욕망과 충동들을 견제하고 제거하고자 했다. 그래서 문명사회는 인간들의 욕망을 비정상적인 것, 잘못된 것, 혹은 불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금기로 만들어 경계 밖에 두었다.

<방한립전>에서 주인공 방관주가 보여주는 욕망⁸⁾은 강렬하다. 금기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거세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 삽입되어 있는 다른 여성 영웅들의 서사와는 다르게, 방관주의 서사는 금기를 위반하여 징벌을 받을지언정, 시작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면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방한립전>의 금기 서사는 사회적 금기와 방관주의 개인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대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관주로 하여금 사회적인 금기를 어기게 만들고, <방한립전>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방관주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공즈 발연변식 왈, “니 님의 선친과 모 명을 밧즈와 남아로 흥흔 지 삼
년이 거의요 흥 번도 기복흔 비 읍난이 웃지 줄연이 니의 집심을 곳치여 선부모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들이 자아와 세계(특히 당대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미령, 『“금기”코드로 풀어보는 <숙영낭자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한국언어문학』 90, 한국언어문학회, 2014, p.105.)

8) 서사 속에 등장하는 방관주는 혼란스러운 존재로 묘사된다.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복을 입고 남성의 세계에서 살아가기를 꿈꾼다. 또한 자신이 여성임을 알고 있는 영혜빙에게 가부장적 의식을 지닌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방관주의 남성적인 면모는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발로에 가깝다. 방관주는 여성의 신체, 남성적 사고라는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여성영웅들과 다르게 방관주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런 방관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방한립전>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방관주를 여성과 남성 중 하나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방관주를 ‘욕망하는 인간’으로 보고자 한다.

의 뜻을 저버리이요? 니 맞당이 입신양명하야 부모의 후사를 빛너린이 어미
논 괴로운 언논을 다시 말나. 니의 본스를 타인게 말을 말물 바라노라.”⁹⁾

위 서술에 따르면 방관주의 욕망은 “입신양명하야 부모의 후사를 빛너”는 것¹⁰⁾이다. 이러한 방관주의 욕망은 당대 사회 관념에 비추어봤을 때 ‘정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욕망이다. 입신양명하는 것은 도를 펼침으로써 천명에 순종하는 최선의 단계이자 모두가 바라는 최대의 욕망이었다. 유교 사회는 ‘입신양명’의 욕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재화하도록 만들어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남성에게만 허락된 사회적 욕망이었다. 그러나 방관주의 이러한 욕망이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금기’시 되는 것은 방관주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입신양명하야 부모의 후사를 빛내’는 것은 남성에게만 허락된 욕망이고 여성에게는 금기시되는 욕망이었다. 하지만 방관주는 사회에서 정한 규율인 금기를 내재화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욕망을 내재화한다. 그런데 방관주는 어찌서 여성의 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성의 도리를 욕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방관주가 지닌 욕망의 기저에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아이’를 원하는 방관주 부모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방관주의 집안은 임금에 대한 절개로 유명한 가문이었지만, 현재는 벼슬을 하지 못한 노년의 부모만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쇠락한 가문이다. 일반적인 영웅소설 속 후사는 가문의 쇠락과 위기의 상황에서 가문을 번성시

9) <방훈입전>, p.4.

10) 방관주의 이와 같은 욕망은 서사 속에서 방관주의 입을 통해 노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다음은 방관주가 형주에 안찰사로 갔을 때 지은 시이다. “自投針絲兮/身飛竊拜/生有願臨兮/死後姓名留<방훈입전>, pp.28-29.)하고 말한다. 입신양명하겠다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여 죽은 후에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이름이 남길 바라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키며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간다. 어렵사리 얻은 후사를 통해 가문이 놓인 현실적 처지를 비유적으로 대변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 아이가 가문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때 그 아이는 남아(男兒)이다.¹¹⁾

하지만 가문을 이어줄 것으로 기대한 아이는 여아(女兒)의 몸을 빌어 태어난다. 더군다나 방관주를 낳고 난 이후 그대로 자녀가 끊기게 되었다. 때문에 방관주의 부모는 방관주가 태어났을 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나마 부부를 위로하는 것은 방관주가 비록 여아의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남성과 같은 기질과 비범함을 타고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방관주의 욕망이 시작된다.

유년기의 방관주가 남복을 입고자 하고 여도를 멀리한 것은 방관주의 기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여아로 태어난 방관주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고, 사회라는 대타자의 욕망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관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방관주의 부모는 방관주에게 여아의 옷을 입히려 하고, 길쌈과 같은 여아의 일을 하도록 권하면서도, 여아의 일을 꺼려하고 남아처럼 행동하려는 방관주를 보고 우려하거나 여아의 일을 강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방관주의 행동을 옹호하며 남복을 입히고는 친척에게 아들이라고 속이기까지 한다.

<홍계월전>에서 홍계월의 부모가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여 남복을 입게 한 것과 비교해보면 방관주 부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방관주 부모가 실로 자식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방관주에게 강제로라도 여

11) 엄태웅, 「<방한립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p.97.

도를 권하여 여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이다. 방관주가 제 아무리 여도의 일을 꺼린다고 해도 여성의 도리를 꺼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규방의 여자로 자라난 영혜빙처럼 부모가 원했다면 이를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방관주 부모는 방관주가 남성처럼 ‘입신양명하고 후사를 빛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채 자라는 것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다. 방관주의 부모는 가문을 이어나갈 후사를 얻기를 바랐다. 하지만 자식인 방관주는 여아였기 때문에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부는 방관주가 ‘가문을 이어줄 남성’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여아를 남아로 둔갑시키는 것은 유교 사회의 성 규범을 혼란시키는 행위로 명백한 금기 위반이었다.

또한 방관주 부부의 이와 같은 바람을 방관주 역시 알고 있었다. 방관주는 위의 인용문에서 자신의 유모인 주 유랑에게 자신이 남복을 입고 남성처럼 행동하며 입신양명하고 후사를 빛내려는 것은 “선친과 모 명을 빛”잡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즉, 방관주 자신의 욕망과 부모의 욕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관주 부모의 바람은 방관주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금기를 위반하는 동력이자, 또한 금기 위반을 합리화하는 장치로도 작용한다.

서사의 주인공이 허용된 범위와 세계에서 순응하고 산다면 그 어떠한 갈등도, 금기 위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의 욕망은 늘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 세계와 갈등을 일으킨다. 방관주의 부모는 방관주가 남성에게만 허락된 욕망을 지닌 채 자라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므로 방관주가 부모의 휘하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방관주 부모는 방관주가 여덟 살이 되던 해에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된다.¹²⁾ 그리고 방관주는 자신의 욕망이 허용되는 세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세계로 이끌려 나오게 된다.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지도, 금기를 내면화하지도 않은 채 세계와 맞닥뜨린 방관주에게 세계는 유모 주 유랑의 입을 빌어 경고한다. “규방의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문밖을 나서서는 안 된다.” 여자가 바깥, 남성의 영역을 넘보는 것은 우스운 일이니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관주는 이러한 유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다. 방관주를 둘러싼 세계는 방관주에게 ‘문백 소저’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방관주는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기로 결심¹²⁾한다. 그녀가 결심한 이후, 더 이상 <방한립전>의 서사 속에 ‘문백 소저’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백 소저는 ‘방공자’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 욕망을 가슴에 품은 채 여성의 몸으로 문밖을 나서는 위반을 저지른다.

2. <방한립전>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 상상

방관주는 입신양명하여 후사를 빛내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금기들을 위반하기 시작한다. 규방이라는 허용 구역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은 남성들의 구역으로 발을 들이밀고, 남복을 입고 여자가 아

12) 금기를 어긴 후에는 반드시 징벌이 뒤따르는데, 이때 방관주 부부가 어린 방관주를 두고 동시에 생을 마감한 것은 ‘여야’를 ‘남야’로 속여 세상의 질서를 혼란시킨 것(금기를 위반한 것)에 대한 징벌로 볼 수 있다.

13) 방관주의 부모가 방관주 이외의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은 사실 또한 방관주가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는 명분이 된다. 여성영웅소설 모든 작품에서 가문의 남자는 한 명 이상 존재한다. 이렇듯 가부장제의 정점에 존재하거나 혹은 언제든 정점에 오를 수 있는 남성이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은, 여주인공이 가문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 역할과 공로를 남성에게 넘겨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여주인공은 일시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잠정적 대리자인 것이다. 그런데 <방한립전>의 방관주는 잠정적 대리자가 아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방씨 가문에서는 여자인 방관주 이외에 가문을 이어갈 남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엄태웅, 앞 논문, p.98.)

닌 남자로 행세하며 친자와 주변을 속인다. 동성(同姓)과 결혼하여 친륜을 끊는 등 금기를 위반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방관주가 자신의 욕망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금기 위반 행위들이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유교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방한립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금기 위반 양상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공적(公的) 영역으로의 침입

유교 사회에서는 가문을 기준으로 안(內)과 밖(外)의 영역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역 구분은 공간의 물리적 분리이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등의 사회적 분리였다. 그리고 또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분리이기도 했다. 가문 안이 출산과 양육 같은 세대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이라면, 가문 밖은 공적인 영역으로서 관직에 나아가는 등의 사회적 진출이 이루어지는 정치의 장이었다. 사적인 영역인 가문 안은 여성의 영역이었으며, 공적인 영역인 가문 밖은 남성의 영역이었다. 유교 사회는 이 두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했으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가문 밖은 남성들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이었으므로 여성은 오로지 가문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다. 부득이하게 여성이 가문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도록 했으며, 특정 신분 여성의 경우에는 외부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옥교자를 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한정지어 놓는 등 많은 제약이 따랐으며 심지어 몇몇의 경우에는 여성의 가문 밖 출입을 법으로 금지¹⁴⁾하기도 했다.

14) <경국대전> 형전에 의하면 여성들의 사찰왕래나 야외에서의 놀이, 제사 지내는 행동 등이 규제 대상이 되었다. 유생이나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나 사족의 부녀로서

많은 규제가 있었으나 어느 정도 안팎의 출입을 허용했던 공간적 영역의 제한과 달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영역의 제한은 더욱 엄격했다. 과거 시험을 보고 관직에 나아가는 등의 사회적 진출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오로지 가문 안에서 아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방한립전>의 방관주는 여성으로서 규방에 머물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문 밖(外) 남성들에게만 허용된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욕망한다. 그리고 방관주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성은 남성들의 영역인 공적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위반한다.

<방한립전>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은 방관주의 철저한 의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방관주 앞에 놓여진 금기는 당대의 사회 질서이자 체제였기 때문에 금기를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았다. 방관주는 부모의 사후부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금기를 위반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두보와 이백 같은 훌륭한 문장가들의 문장을 익히고, 병서(兵書)를 읽었다. 뿐만 아니라 손무, 오기 같은 병법 대가들의 모략과 함께 무예를 익힌다.

금기를 위반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방관주는 남북을 입은 채로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방관주는 천자가 과거를 베풀어 인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후, 노복에게 명령하여 행장을 준비하고 사내 종과 작은 아이를 데리고 과거 길에 오른다. 그렇게 과거 시험 당일에 이르러서는 조금의 거리낌이나 머뭇거림도 없이 답안을 작성한다. 나라에 인재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여유를 보여주면서 장원 급제하여 영화를 쟁취한다. 방관주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방관주의 금기 위반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

산이나 냇가를 찾아다니며 노닐거나, 아외 제사, 산천, 성황의 사묘제를 직접 지낸 부녀자는 장 100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순경, 『유가 사상과 성별 분업』, 『여성학 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1, p.183.

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한립전>에 등장하는 금기 위반의 모습은 설화나 다른 여성영웅소설들 속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 양상과 차이가 있다. 방관주는 금기를 위반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위반의 과정 또한 자신이 의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금기 서사들을 살펴보면, <방한립전>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을 위한 준비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며, 위반의 과정 또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화의 경우, 사회 체제보다는 심리적인 제약으로서 금기 화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금기 위반 행위에 있어서 큰 노력이나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여성영웅소설들의 경우에는 ‘규방을 벗어나 남성의 영역으로 침입한다.’는 사회 체제 범위에서의 금기 위반이 일어나는 점은 같으나, 의도성이나 적극성의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 모두 허용되지 않던 ‘남성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금기를 위반하지만, 대부분 시작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남성에게만 허용된 영역으로 들어서기 위해 방관주가 남복을 입는 것과는 달리,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남복을 입는 이유는 보통 ‘늑흔(勒婚)’¹⁵⁾이나 전쟁 같은 신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방관주는

15) 늑흔 위협은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남복을 개착하고 가출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늑흔의 위협을 피해 남복을 개착한 후 가출한 여주인공은 구원자의 도움을 받아 남성적 수학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성영웅으로 변신하게 된다. (곽정식·강희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전개』, 『인문과학논총』 9,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p.3.)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대봉전>이 있다. 왕희 9달 석연에 어진 가숙을 정하고 길일을 택하여 노복과 교자를 가지고 장미 등을 차져가니 밤은 임의 삼경이라 장한림 덕을 차져 드러가 겁탈 코즈 하더니 잇췌 소저 등축을 받키고 시셔를 살피고 잠신흔더니 문득 외당에서 인마 소리 들리거늘 시녀 란향을 부른다.(중략) 의복을 버셔 란향을 주고 남복을 환착하고 란향의 손을 잡고 통곡으로 리별할제 곡성이 나면 왕희의 적당이 알가 넘려햐야 곡성은 너지 못햐고 가삼을 두다려 락투 왁 명턴이 감동햐스 우리 노췌 다시 맛나 보게 햐옵소서.<이대봉전>, pp.406-407.)

입신양명하기 위해 혼자서 능력을 갈고닦아, 스스로 관직에 나아갔다. 하지만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남복을 입고 남성의 영역으로 발을 들인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스스로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홍계월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홍계월이 남복을 하게 된 것은 딸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부모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후 홍계월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도 도사의 권유에 의해서이다. 즉, 방관주가 입신양명의 욕망을 위해 스스로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라면, 다른 여성영웅들은 위협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가문 밖으로 나오게 된 여성영웅들은 이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영웅으로서 거듭난다.

그리고 <방한림전>에 나타나는 금기 위반의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표면적으로는 금기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방관주의 금기 위반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당대 유교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방관주는 과거 시험에서 천자에게 훌륭한 문장을 선보여 한림학사의 지위에 오른다. 그리고 관직을 하사받은 후에는 열 셋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천자를 잘 보필하는 훌륭한 선비이자, 강직하고 절개가 높은 충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형주 안찰사가 되었을 때는 맡은 바 소임을 잘하여 관아에 일이 없을 정도였고, 나라에 위급한 일이 닥치자 자원 출전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공을 세운다. 그리고 이후 명실상부한 최고 지위인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이처럼 방관주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행적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기 위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방관주의 욕망이 유교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던 욕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는 역설적이게도 당대 유교 사회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유교의 도덕 윤리를 실천하

는 일은 남성에게만 허용된 일이었다. 방관주의 실재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유교적 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천자와 세상을 속이고 유교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명백한 금기 위반 행위였다.

2) 동성(同性) 혼인

한림학사로 관직에 나아간 후 방관주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구혼을 받는다. 하지만 방관주는 부모의 바랐던 것처럼 가문을 이어가기를 욕망하면서도 쉽사리 구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인하기를 꺼린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동성 혼인이 사회적인 금기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배우자를 얻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방관주는 남자 행세를 하면서 평생 남성의 영역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랬기에 혼인을 한다면 남성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성(性)인 여성 배우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여간의 일이었다. 남녀와 같은 이성이 아닌 남남이나 여여(女女)의 동성간의 결합은 유교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일로 간주되었다. 방관주는 이러한 동성 혼인이 금기시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서사 속에서 동성 혼인을 하는 행위를 두고 ‘인륜을 끊게 하는 일’이라 말한다. 하지만 방관주는 영혜빙과 혼인 함으로써 ‘인륜을 끊는’ 금기 위반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방관주가 동성 간의 혼인을 결심한 것은 의심을 피하고,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이다. 남자 행세를 하면서 처자를 두지 않으면 주변의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입신양명하여 충신으로 이름을 남기고 부모의 바람처럼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방관주는 금기를 위반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영공의 구혼을 받아들인다.

<방한립전> 서사에 등장하는 동성 혼인은 겉보기에는 당대 유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일반적인 남·녀간 혼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방한립전>에는 혼사를 결정하기 전에 방관주가 영혜빙을 만나 어떤 인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는 영혜빙이 가문의 아녀자로서 적합한 여자인지 방관주가 확인하는 과정이다.

방관주와의 만남에서 영혜빙은 놀라 ‘밝은 눈을 숙이고 단정히 앉는다.’ 방관주는 이러한 영혜빙의 모습을 보고 예쁘고 재기 있는 ‘요조숙녀’¹⁶⁾라고 칭한다. 요조숙녀란 그윽하고 정숙한 숙녀이자 군자의 좋은 배필이라는 뜻으로 당대 유교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던 인간상이었다.

방관주는 영혜빙을 만난 후 혼사를 수락하는데, 이는 영혜빙을 가문 내에서 ‘아녀자’의 역할을 맡아줄 인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관주는 여성이라는 것을 들킬 수 없었기에 영혜빙과의 혼인 후에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때문에 혼인 후에 문제가 생겨도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자신을 문제 삼지 않는 순종적인 여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관주는 영혜빙을 보고 자신은 거부했던 ‘여성’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본 것이다.

이는 방관주가 애초에 영혜빙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혼인 후 신방에서 영혜빙이 방관주에게 은근히 정체에 대해 말을 건네자, 방관주는 영혜빙이 자신을 알아본 줄 알고 그 고명함에 감탄하지만 너무 맑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¹⁷⁾고 말한다. 그리고는 능

16) 설과의 전어허야 쇼저를 명헌니 쇼저 이욱고 나와 부명을 응할시 엇던 쇼년 명스 좌의 잇스물 보미 경황허야 명모를 숙이고 단좌허미 진슬노 요조숙녀라. <방한립전>, p.15.

17) 활임이 그윽히 영씨 즈가 알아보물 슷치고 지인의 고명함을 경탄허나 너무 말그물 불열허야 다시 기구치 안코 츠야을 지니다. <방한립전>, pp.19-20.

청스럽게 영혜빙이 건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척한다.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본 영혜빙의 영민함에 감탄하면서도 ‘아녀자’인 영혜빙이 사리에 밝은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영혜빙의 영민함은 방관주 가문의 아녀자이자, 자신의 처로서 역할을 해줄 여성에게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관주는 영혜빙에게 정체를 들켰음에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영혜빙이 두 번째에 직접 방관주의 정체를 안다고 말하고서야 자신이 금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하지만 금기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영혜빙에게 자신이 금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침묵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으로 하여금 영혜빙 또한 금기를 위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체를 들킨 것이 다행스럽게도 전화위복이 되었다. 영혜빙이 방관주의 기대에 따라 가문의 ‘아녀자’ 역할을 맡아주기로 한 것이다. 영혜빙의 협력 덕분에 두 사람의 금기 위반 행위는 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들은 여러 혼사장애를 거쳐 결국은 당대의 보편적인 이성 가정을 이룬다. 이성과의 ‘혼인’을 통해서 나라에 많은 공적을 세운 여성영웅들이 결국은 집 안의 ‘아녀자’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홍계월전>의 주인공이 이의 대표적인 경우¹⁸⁾이다. 또한 ‘동성혼’이 등장하는 <덩각늑>이나 <부장양문록>의 경우¹⁹⁾에도 여성영웅이 외부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잠시 ‘동성혼’을 유지하나 곧 남

18) <홍계월전>의 홍계월은 천자의 중매로 보국과 혼인하여, 한 가정의 아녀자로 돌아간다.

19) <덩각늑>, <부장양문록>의 경우를 보면 두 작품 다 여성주인공이 위기를 피해 남장을 하고 있을 때,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같은 성인 여성과 혼약을 맺는데 결말에 이르러서는 한 명의 남성주인공의 정실과 첩의 관계로 변한다.

성 반려자를 만나 보편적인 이성 가정의 형태로 복귀한다.

하지만 <방한림전>에는 이와 같은 사회 질서로의 재편입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관주는 동성혼이라는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사회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방관주가 사회질서의 유지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관주는 조정에 갔다 오면 외부인과 만나지 않고 내당에서 영혜빙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영혜빙 또한 방관주가 멀리 떠나 집안에 없어도 방관주 집안의 제사를 받들며 가문의 아녀자로서 내조를 다 한다. 또한 이들은 낙성이라는 아이를 얻어 가문의 후계자로 키우며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 후에 낙성 또한 관직에 나아가 충신이 되었으며, 가정을 이루어 한때 대가 끊길 뻔한 가문에 자손이 번창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람들은 이상적인 부부 관계로 보았다.

영혜빙과 방관주는 혼인을 통해 당대의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은 동성 간의 혼인으로 실제로는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일이었다. 그러나 영혜빙의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 내밀한 일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금기 위반은 평생 유지되었고, 덕분에 가문 안에서 자신의 바깥 일을 내조해줄 수 있는 반려자를 얻은 방관주는 덕분에 의심을 피하고 자신의 욕망을 구현할 수 있었다.

3. 금기 위반에 따른 징벌과 '방관주'의 죄의식

금기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다. 그런데 금기를 어기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금기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기는 위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다.²⁰⁾ 구성원들이 욕망을 참지 못하고 금기를 위반하게 되면, 징벌을 내려 금기 위반 때문에 손상당한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다. 때문에 금기 서사에 서는 금기를 위반하면 이에 따른 징벌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러므로 방관주가 남자로 처신하며 ‘입신양명’하겠다고 금기 위반을 선언했을 때부터 방관주에 대한 징벌은 예견된 일이었던 것이다.

금기 위반에 따른 징벌은 금기 위반자의 내부와 외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난다. 금기 위반자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벌은 금기를 어긴 것으로 인한 죄의식, 양심의 가책과 불안, 그리고 그에 따른 내면적 고통이다. 그리고 금기 위반자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징벌은 사회 질서나 제도, 혹은 특정 인물 등 금기 위반자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고통이다. <방한림전>의 서사 속에는 ‘금기를 위반한 것에 따른 죄의식’이 징벌로서 나타나고 있다.

금기를 위반한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동티가 날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금기 위반 시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스스로에게 크고 작은 불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기 위반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그들의 죄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죄의식이란 특정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행한 행위에 대한 내적 유죄 판단의 지각이다. 금기를 위반하는 일은 끔찍한 죄의식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생겨난 죄의식은 자신 스스로를 처벌하도록 만든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느끼게 하고, 금기를 위반한 행위를 비난하도록 만든다.

20) 처벌은 질서에 어긋난 위반 행위를 했거나 위반의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한 데에 대한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다. 금기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로부터의 체명, 구속과 격리, 신체형 등의 처벌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p.90.)

방관주는 금기를 위반한 것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린다. <방한림전> 서사 속에 죄의식으로 인해 방관주가 겪는 내면적 고통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 급제한 후, 구혼자들을 앞에 두고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묘사되거나,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성 혼인이라는 또 다른 금기를 앞에 두고 매우 괴로워한다는 서술 등이 그 예이다.

방관주의 죄는 서사 속에서 가시화된 존재로 나타나는데 바로 방관주의 유모이다. 금기는 방관주의 유모 주 유랑의 입을 빌어 방관주가 금기를 위반한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²¹⁾ 방관주가 남복을 하고 남자로 처신할 때, 방관주가 과거에 급제한 이후, 영혜빙과의 혼인을 앞두고, 그리고 혼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관주와 영혜빙에게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금기를 어긴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린다. 이처럼 서사 내도록 반복되는 유모의 행동과 발언은 독자들에게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며, 서사의 긴장감을 부여한다. 또한 금기를 위반해 당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방관주의 행동에 대해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유모 외에도 주표(朱標)²²⁾, 수염이 자라지 않는 깨끗한 얼굴, 그리고 천자, 영혜빙 등이 서사 속에서 방관주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표와 수염이 자라지 않는 깨끗한 얼굴은 방관주로 하여금 자신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만든다.²³⁾ ‘유교 사회의 남

21) 일일은 유모 주 유랑이 쇼저를 모셔 말삼하던이 유모 고향, “이제 쇼저의 방년이 구 세해. 규리의 녀즈 십 세의 불출문외라 혼이 원컨디 공즈난 도라 생각하시고 우은 거조를 그만 굿치스 나종을 어즈랍게 말으스 선노야 부인 영혼을 평안이 흐쇼셔.” <방한림전>, 3면. 어시의 방 할임이 부중의 도라가 영가 혼스를 주 유랑을 보고 일은이 유모 실식 왓, “가치 안타. 우리 낭군의 혼스난 옥 갖튼 군즈의 잇스니 웃지 규슈의 잇스리요? 이럿듯 고히흔 거조를 하시고 나종을 엇지려 혼싯인가?” <방한림전>, p.15.

22) 방관주는 천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할 때 주표를 보여준다. 방관주의 팔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주표는 죄인이라는 낙인이다.

23) 상이 영 쇼저지 봉관화리로 명부의 복식을 주신이 영광이 더욱 호성하고 영 쇼저

성'이 되기를 욕망해, 천자를 속이는 일은 그 자체로 모순을 발생시킨다. 영혜빙은 방관주의 공범이자 금기 위반자이며, 방관주로 하여금 천륜을 끊게 만든 존재이다. 방관주는 영혜빙과 혼인하기 전, 그리고 혼인한 후에도 종종 그녀를 보며 자신의 욕망 때문에 금기를 어기게 만든 사실을 되새기며 괴로워한다.

도사가 나타나 방관주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알렸을 때, 방관주는 놀라지 않고 다만 덤덤한 모습을 보인다.²⁴⁾ 죽음을 앞둔 방관주의 의연한 태도는 방관주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이 금기를 위반한 대가로 언젠가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방관주는 도사의 말을 들은 후 천자에게 자신이 금기를 위반했음을 고하는데, 이때 방관주는 천자의 앞에서 자신이 이른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 '양화(殃禍)'²⁵⁾라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방관주의 내면 속에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풍치를 도으니 시랑이 눈을 드러 쇼저를 보고 닝쇼 왈, “부인이 학싱 갖든 가부를 만나실시 십삼 청춘의 너의 원비되야 봉관화리로 도오니 죠달흐시물 흐려흐나이다.” 영 쇼저 화관을 기우리고 단순호치 현출흐야 왈, “이 다 현후의 은덕이라. 성덕이 산악 갖건이와 여즈 가부의 은총 이부미 살이 올홀지라 웃지 도로혀 앓기시난요?” 시랑이 디쇼하고 쏘흔 남아 안이물 슬어흐더라. <방흔입전>, pp.24-25.

24) 방관주는 관찰사로 가기 전 유모와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미래, 금기 위반으로 처벌받는 미래에 대해 언급한다. 자신의 수명이 유모인 주 유랑보다 길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는 듯한 말을 건네 유모를 근심에 잠기게 한다.

25) 양화(殃禍)란 지은 죄의 양값음으로 받는 재앙을 뜻한다. 신은 본디 여즈라 부모 일즉 죽삽고 어린 쇼견의 부모 스후 미물흐물 스러 십이 세의 전흐인지를 쉼시물 듯고 구경코즈 나와다가 폐호의 승은을 입스와 오날가지 일으나 본격을 츠마 주달치 못흐 압고 쏘 영 공의 펴박하물 입스와 부득한 연고 잇삽고 영녀 쏘흔 처음의 신을 알아보미 잇스되 승품이 고이호와 발언치 안코 흐낫 지기 되와 외인의 시비를 속인 제 오란 지라. 오날날 양화를 입어 황천의 가온이 쇼회를 진달흐압나니 <방흔입전>, p.65.

방관주는 금기를 어긴 순간부터 그동안 무시해왔던 ‘양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양심은 죄의식이라는 감정을 부여한다. 죄의식은 양심을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 도덕적인 감정 중의 하나이다. 양심 혹은 양심의 가책은 무의식에 잠복해 있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유혹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유혹에 대한 갈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죄의식을 더욱 발전시킨다.²⁶⁾

또한 죄의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방어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자 한다.²⁷⁾ 죄의식은 방관주에게 여성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방관주는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가부장적인 모습²⁸⁾을 보여주며 질서의 수호자가 된다. 이때 방관주가 보여주는 가부장적인 모습,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영혜빙에게 남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순전히 자기만족이며 금기 위반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자신의 금기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방관주가 서사 내에서 보여주는 가부장의 모습은 일종의 금기 위반에 대한 속죄의식인 것이다.

방관주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에게만 허용된 공간에 발을 들이려는 금기를 저질렀다. 금기를 위반해 얻는 죄의식들은 위반자들로 하여금 속죄하도

26)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pp.121-123.

27) 김태훈, 『죄의식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소고』, 『도덕윤리과교육연구』 30,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pp.7-8.

28) “문밖 형은 웃지 우연한 일의 유모를 질타하신난요? 유모 불과 위주충심이라. 또한 알음답지 아니냐?” 상셔 봉안을 흘려 영 씨를 숙시 왈, “부인이 여도를 알 썩라 웃지 가장의 즈를 부르난요? 니 오히려 묘주라 알아난이 부인의 일이 가히 올흔야?” <방훈 임전>, p.37. 사랑이 이러나며 연연의의하야 이윅고 가연이 이러나며 웃고 가라디 “대장부 나라의 몸을 허하미 안여즈의 티을 하야 쳐즈로 이별을 익기리요? 길이 무양하라.” <방훈 임전>, p.26.

록 부추긴다. 징벌을 통한 속죄로 금기 위반으로 인해 훼손당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방관주는 금기를 위반한 후 죄의식에 사로잡혀 속죄하기 위한 행동을 하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처벌한다.

방관주의 욕망은 실로 강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끈다. 대부분의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방한림전>이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은 ‘방관주’가 가진 욕망이 여타 다른 영웅소설의 통속성을 뛰어넘을 정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방관주가 유모의 말을 듣고 금기를 위반하는 대신 자신 안에 내재화된 욕망을 체념했다면, 유교 질서에 성 규범을 내면화한 훌륭한 여성 인물로 서술되며 다른 여성영웅들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처럼 금기는 당연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믿음 체계를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금기 위반이 일어났을 시, 위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준다. 이러한 내면의 죄의식으로 금지된 짐승을 잡아먹은 순진한 범죄자가 매우 의기소침해져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다가 정말 죽어버리거나 하는 경우²⁹⁾가 있는데, 방관주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관주의 벌은 방관주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리고 결국 방관주는 스스로가 한 말처럼 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죽게 된다.

하지만 방관주는 유교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금기 위반자’가 되었고,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다. 사회질서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매번 금기를 위반하며 생의 마지막에서야 자신의 금기 위반을 실토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방관주는 한평생을 고독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처럼 방관주의 삶은 욕망과 금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금기를 위반하고 징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

29) 프로이트, 앞의 책, p.37.

4. ‘문곡성’의 금기 서사와 징벌의 완성

<방한림전>에 나타나는 금기와 금기 위반 양상을 살펴보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³⁰⁾ 이러한 <방한림전>의 금기 구조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ㄱ. 금기 갈등	ㄴ. 금기 위반	ㄷ. 징벌
지상계	입신양명의 욕망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영역을 탐냄 동성혼인	이른 나이에 죽음
천상계	상아성과 화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	주어진 소임을 하지 않음	방관주의 삶

지상계에서 방관주는 입신양명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남복과 동성혼인 등을 통해 관직에서 나아가 남성의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징벌로써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방관주의 전생인 문곡성은 천상계의 신으로서 상아성과 화락을 즐기느라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천상의 신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금기를 어긴 것이다. 그리고 금기 위반에 따른 처벌로서 문곡성은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의 삶을 살게 된다. 이처럼 <방한림전>은 속세의 욕망을 내재화한 방관주의 서사와 방관주의 전생인 문곡성의 서사, 이렇게 두 가지의 금기 서사로 구

30) 우리난 본터 문곡성(文曲星)과 상아성(姮娥星)이런이 금슬(琴瑟)이 너머 진중(珍重)호 고(故)로 슈유불이(須臾不離)호니 님스(任事)를 폐(廢)호미 상계(上帝) 미운(未穩)이 역이스 티을(太乙)이 속이고즈 호야 상계(上帝)게 슈(奏)호고 문곡성은 방가의 니치고 상아성은 영가의 니진이 문곡성은 본(本)이 남즈미 남즈의 슌업을 호고 티을이 희롱호야 여즈되게 호문 허명으로 부부되야 천상의셔 너무 방즈호물 벌호미라. 지난 바를 생각호면 가지록 우읍고 한심호지라. 이에 모다 예와 갖치 화락호난이 너희난 설위 말고 부터 가성을 빗니고 만슈무강호라. <방한림전>, pp.73-74.

성되어 있다.

<방한림전> 속에 등장하는 문곡성의 서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적강화소로서 당대 고전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던 통속적 흥미소의 역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성되지 못한 방관주의 금기 서사를 완성하는 역할³¹⁾이다.

<방한림전> 속 방관주의 금기 서사는 금기 갈등-금기 위반-징벌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징벌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것은 방관주가 징벌로서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이른 나이에 죽게 되지만, 여성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성의 영역에 속한 채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유교 질서의 현신인 천자가 방관주의 죄를 용서해주며, 남성의 장례를 치러준다. 방관주는 일개 아녀자가 아니라 승상으로서 죽음을 맞이한다. <방한림전>에 나타난 이러한 부분들은 금기 위반자에 대한 징벌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방관주는 금기를 위반한 채로 죽었고 방관주가 훼손한 유교 질서도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방한림전>에서는 방관주가 금기를 위반한 채 죽은 후에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또 다른 금기 서사가 등장한다. 그것이 바로 문곡성의 서사인 것이다. 그리고 문곡성의 서사에 따르면 방관주의 삶은 오로지 문곡성이 저지른 금기 위반에 대한

31) 조현우는 <방한림전>의 주요 갈등을 어떤 사건이나 그 속에서의 인물간 갈등이 아니라 방관주의 남장과 결혼 그리고 낙성을 통한 가문의 계승에서 생겨나는 젠더 규범과의 갈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방관주가 처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것만으로는 서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젠더 규범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방한림전> 서사 후반부에 나타나는 번성한 가문에 대한 상제한 서술, 천상계 문곡성의 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동성결혼과 남장의 유지라는 파격적 위반을 무마하기 위해 과도한 설정을 동원하여 '융합'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pp.123-125.)

하나의 징벌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 징벌이 바로 <방한립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징벌이며, 이때의 징벌은 방관주가 스스로에게 내렸던 징벌이 아니라 상제라는 징벌 주체가 금기를 위반한 객체, 문곡성에게 가하는 징벌이다. 천자에서 상제로, 지상계에서 천상계의 이야기로 서사를 확대하여 불완전한 징벌을 완전하게 만들고 있다. 방관주의 삶 자체로는 위반의 여지가 남아있는 금기 서사를 문곡성의 삶으로 확장시켜 완성한 것이다.

Ⅲ. <방한립전>에 나타난 금기 위반의 의미

금기는 전통적 관습, 혹은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것들을 불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제한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규정한 금기를 지킴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금기를 위반한 자들에게는 징벌이 뒤따랐다. 이들은 금기 위반자라는 낙인을 단 채로 죄의식에 고통받으며 사회에서 축출당했다. 현실에서 금기 위반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금기 위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또 용납되는 공간이 있었다.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일탈의 공간이다.

인간의 서사는 금기와 그 금기를 위반하려는 욕망의 사이의 줄다리기다.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욕망은 계속 금기를 넘어서도록 인간을 몰아세운다. 금기를 위반하려는 인간들의 욕망과 욕구들을 그저 억누르기만 한다면, 해소되지 못한 인간의 욕망은 금기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할 것들로 변모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금기는 더 이상 사회 질서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금기가 배제하려고 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부정한 것’이 된다.

그래서 금기는 금기를 위반할 수 있는 일탈의 공간을 부여해, 현실에서

는 표출하지 못할 내면의 욕망들을 해소시킨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일탈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금기 위반들을 묵인해준다. 사람들은 허용된 공간에서 현실에서는 죄의식 때문에 자제했던 욕망을 풀어 놓고, 자신들을 구속하는 제약을 뛰어넘는다.

여성 독자들은 <방한립전>이라는 일탈의 시공간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못했던 공간으로 발걸음한다. 평소의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그들의 삶을 탐닉한다. 붉은 치마를 벗어던지고, 남복을 입고, 치장하는 대신 검을 손에 쥐고 전장을 누빈다. 동성을 반려자로 삼아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꿈꾼다. 여성 독자들은 <방한립전>의 금기 서사 속에서 금기를 위반하고 현실을 역전시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 남복을 입고 사회진출을 이루어내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방한립전>은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금기 위반의 표지가 된다.

물론 일탈의 공간이라고 해서 금기 위반을 완전히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탈의 공간에서 금기 위반을 허용해주는 것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질서를 굳건히 유지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위반의 시공간에서 내면의 욕구를 분출하고, 대리만족한 뒤 현실로 돌아온다. 위반을 저지른 이후에는 기존 질서로 통합되는 것. 그것이 일탈의 공간에서의 금기 위반을 허용해주는 암묵적인 조건이다.

32) 아마우치 히사시는 인류가 금기라는 문화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폐기하는 특별한 문화 장치를 고안해 낸 현상을 두고, 한 사회가 어떤 일정 기간에 한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배출하여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 보면서 이를 사회적 기분전환 장치라고 하였다.(아마우치 히사시, 정성호역, 『터부의 수수께끼』, 사람과사람, 1997, p.231) 민속극에서 천민이 양반을 풍자하고 비난하며, 민요나 규방가사, 사설 시조 등에서는 아내나 며느리가 남편이나 시댁식구를 비난한다. 이런 행위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는 철저하게 규제되는 금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연호, 『놀이공간에서의 문화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2006, pp.38-39)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방한림전>의 주인공 방관주는 표면적으로는 유교 질서를 구현하는 이상적인 인간이다. 뛰어난 재주로 천자를 보필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주저함 없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훌륭한 관리이자 장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문 내적으로는 가부장이 되어 요조숙녀 아내와 효성스러운 아들을 얻어 가문을 번영케한다. 입신양명하여 후사를 빛내줬다던 욕망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방관주가 보여주는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은 실제로는 유교 질서를 혼란시키는 명백한 금기 위반 행위였다. <방한림전>의 서사 속에서 방관주가 이루어내고, 욕망한 모든 것들이 여성인 방관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는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를 징치함으로써 훼손된 금기를 복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징벌을 통해 금기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욕망과 금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에게 금기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결국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 질서와 규범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방한림전>은 금기 위반에 따른 징벌을 통해 기존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를 쉽게 유교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작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방한림전>은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를 징치하면서도,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의 삶을 긍정해주는 양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기는 방관주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어 징벌을 내리고, 방관주가 훼손시킨 질서와 규범을 회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징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질서와 규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위반에 대한 대가로 방관주가 치른 징벌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다. 이는 방관주가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서 ‘유교 사회의 여성’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

교 사회의 남성'의 자리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다른 여성영웅소설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방한림전>의 이러한 결말의 특이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방관주는 자신이 금기를 위반한 사실을 천자에게 고하면서도, 그녀는 죄의식을 느끼지언정 위반한 행위 자체를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금기를 위반한 사실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녀자'의 위치로 돌아가 살 거나 죽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여성영웅소설들과 달리 <방한림전>에는 주인공이 유교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관주는 <홍계월전>의 홍계월, <부장양문록>의 장수정금 등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과 달리 기존의 질서에 통합되지 않고 금기를 위반한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는 "남자로 행세하여 몸을 마치려고" 했던 자신의 욕망처럼 끝끝내 '유교 사회의 가부장적인 남성'으로서 죽는다.³³⁾

여성영웅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이 당대 성규범을 혼란시킨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모두 금기 위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남북으로 영웅적인 활약을 하고 난 이후, 즉 금기를 위반한 이후 여성임을 밝히고 방관주처럼 속죄의식을 거친다. 하지만 그 이후 다른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유교 사회가 규정해놓은 '여성'의 자리로 돌아간다.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기존의 질서에 순응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방한림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방관주는 금기 위반자로서 삶을 마친 것이다.

그리고 금기를 위반한 채로 죽은 방관주를 천자가 용서해주고 인정해주었다는 점도 문제적이다. 방관주가 금기를 위반하면서까지 추구한 욕망은

33) 활임이 괴로오미 극하나 쏘흔 헤허리미, 임의 남자로 형세하야 종신코즈 허미 처즈을 두지 아니면 방인이 의혹허리니 차라리 아름다운 숙여을 으더 평성지기 잇스미 맛당 허나 츄마 스람을 숙여 인윤을 희지오미 어렵고. <방한림전>, p.6.

내외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유교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방관주는 천자를 비롯해 세상을 속이고, 유교 사회의 성 규범을 무시해 위태롭게 하였다. 하지만 천자는 오히려 방관주를 위로하고 칭찬하며 죽을 때까지 그의 벼슬을 거두지 않았다. 또한 죽은 후에도 신하로서 제사를 치러주었다. 당대 유교 질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천자가 금기를 위반한 자를 배제하지 않고 인정해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기 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방관주가 죽음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방관주가 훼손한 유교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수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죽음이다.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통해 완성된다. 방관주는 유교 사회가 규정해놓은 아녀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남성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완성했다. 유교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징벌로서의 죽음이 오히려 방관주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다. 만약 그녀가 천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한 후 죽지 않고 살았다면, 다른 여성영웅들처럼 ‘아녀자’의 자리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관주는 죽음으로서 ‘아녀자’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이처럼 <방한림전>은 금기 위반자를 징치하여 유교 사회의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작품이면서, 그 이면에는 금기 위반자의 삶을 긍정하는 양가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이 아무리 일탈의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 속 방관주의 삶을 모두 긍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방한림전> 속 방관주의 행위는 겉보기에는 유교 질서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욕망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영혜빙과의 동성혼인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는 가문을 번영케 하였으나 천륜을 끊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가 지닌 이러한 점들은 아무리 문학이 일탈의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대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

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방한림전>은 말미 부분에 나타나는 방관주의 삶이 사실은 문곡성이 저지른 금기 위반에 대한 징벌일 뿐이었다는 서술은 방관주가 저지른 금기 위반을 약화시키고 어떻게든 다시 사회 질서로 통합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를 통해 다시 사회 질서에 통합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금기 위반자로서 생을 마친 방관주에 주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는 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하면서도,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금기가 가득한 세계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해주고 있다.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가 지니는 양가성은 <방한림전>이 문학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이다. <방한림전>은 당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 금기 위반자의 욕망 어린 삶을 긍정해놓은 실험적인 작품인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인간 고찰의 한 일환으로서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여성영웅소설 <방한림전>의 서사를 하나의 금기 서사로 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금기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방한림전>은 천상계의 인물인 문곡성이 금기를 위반하여, 그 징벌로써 방관주라는 인물로 속세의 삶을 살게 되는 징벌담이다. <방한림전>의 서사는 크게 방관주의 내재화된 욕망이 사회적 금기에 부딪히는 도입부, 방관주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 금기를 훼손하게 되는 전개부, 훼손당한 금기가 금기 위반자를 징벌함으로써 훼손당한 부분을 재생하려는 결말부로 나눌 수 있다.

<방한림전>에서 금기는 성스러운 것, 즉 유교 사회의 규범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유교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위협하게 만드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을 배제하는 논리이다. <방한림전> 본문에서 금기는 유교사회의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道理)”라는 말로 표현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도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금기를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영역을 유지한다.

금기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면서 또한 위반하도록 유혹한다. 서사에서 금기가 등장하면, 그 뒤로 금기를 위반할 가능성과 금기를 수행할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허용된 범위와 세계에서 순응하고 산다면, 서사 속에서 그 어떤 금기 위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사 주인공의 욕망은 늘 그 허용범위를 넘어서 금기와 충돌한다. <방한림전>의 주인공 방관주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에게만 허용되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를 욕망한다. 그리고 <방한림전> 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결국 금기를 위반하고 마는, 금기 위반자로서의 방관주의 고통스러운 삶이 잘 나타나 있다.

방관주의 욕망은 그녀의 부모로부터 시작되며, 방관주는 서사 속에서 부모의 의중을 내세워 금기를 어긴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 모습을 보여준다. 방관주는 서사 속에서 끊임없이 금기를 어긴다. 영혜빙의 부모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천자까지 속이며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녀의 욕망은 실로 강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이끈다. 대부분의 영웅소설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방한림전>이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은 ‘방관주’가 가진 욕망이 여타 다른 영웅소설의 통속성을 뛰어넘을 정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독자들은 <방한림전>의 금기 서사 속에서 금기를 위반하고 현실을 역전시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허용되지 않

던 시절에, 남북을 입고 사회진출을 이루어내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방한립전>은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금기 위반의 표지가 된다.

<방한립전>의 금기 서사는 유교 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하면서도,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금기가 가득한 세계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해주고 있다.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를 징치하면서도, 방관주의 삶을 긍정하는 양가성을 보여준다. <방한립전>의 금기 서사가 지니는 양가성은 <방한립전>이 문학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이다. <방한립전>은 당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 금기 위반자의 욕망 어린 삶을 긍정해놓은 실험적인 작품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여성영웅소설 <방한립전>의 금기 서사를 살펴보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방한립전> 이외의 다른 여성영웅소설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금기 서사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후속 작업으로 남겨두며 본고가 향후 이러한 연구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저서

- <방한립전> 『(羅孫本) 筆寫本 古小說資料叢書』 11, 보경문화사, 1991.
조선대학교BK21+ 아시아금기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팀, 『언어와 금기』, 역락, 2015,
p.134.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 『라캉의 정신분석학』, 『비평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06.
야마우치 히사시, 정성호역, 『터부의 수수께끼』, 사람과사람, 1997, p.231.
프로이드, 이윤기 옮김, 토론프와 터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pp.33-41,
pp.121-123.

2. 논문

- 곽정식,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전개』, 『인문과학논총』 9, 경성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pp.1-20.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
구학회, 2008, pp.189-216.
김미령, 『“금기코드”로 풀어보는 <숙영낭자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한국언어문학』
90, 한국언어문학회, 2014, pp.101-125.
김정녀, 『<방한립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洋橋語文研究』 21,
반교어문학회, 2006, pp.223-252.
김태훈, 『죄의식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소고』, 『도덕윤리교육연구』 30, 한국도덕윤
리과학교육학회, 2010, pp.1-22.
김하라, 『<方翰林傳>에 나타난知己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학교, 2002, pp.225-245.
김 효, 『놀이와 관한 인문학적 고찰』, 『불어불문학회연구』 46, 불어불문학회, 2001,
pp.165-188.
박연호, 『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2006, pp.37-62.
엄태웅, 『<방한립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pp.89-117.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 - <방한립전>을 중심

- 으로, 『한국고전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pp.109-155.
-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표출양상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8, 숙명여자대학교, 2000, pp.39-72.
-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어국문학회, 2001, pp.253-277.
- 정종진, 『금기 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pp.81-104.
- 조순경, 『유가 사상과 성별 분업』, 『여성학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1, pp.177-193.
- 조현우, 『〈방한림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pp.97-132.
- 차옥덕, 『〈방한림전〉의 구조와 의미: 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113-169.
- 최일성, 『금지와 타부, 혹은 이항대립적 사고의 정치사상적 기초에 관한 연구: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9,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11, pp.246-288.

Abstract

Taboos and Violations in Female Heroine Novel

– Focusing on Narrative and Characters of *Banghanlimjeon* –

Gwak, Hyeon-hee

Taboo is a device employed to protect and maintain a person, society, and sacred things from something unclean. In *Banghanlimjeon*, the taboo is a logic to prevent a sacred thing, that is, norms in Confucian society from damages and to exclude unclean and dirty things which creates threats for norms and orders in Confucian society. Taboo appearing in *Banghanlimjeon* is expressed as a principle (道理), which should be followed by human beings living in a Confucian society. Members in the society establish their own identities and maintain orders and spheres of their community by keeping taboos expressed as principles(道理).

However, paradoxically, a taboo not only makes people follow it but also tempts them to violate it. Bang Kwan-ju, a protagonist in *Banghanlimjeon*, is a being of desires. If desires in the heroine were similar to those of others internalized by society, there would be no conflicts and violation of taboos. However, the desires of the heroine in the narrative are always beyond their limitations and collide against taboos. Though Bang Kwan-ju was born as a woman, she always violated taboos in the narrative because of her own desire to live as a 'man'.

Female readers feel catharsis through violation of taboos and reversal of the reality in the narrative of taboos in *Banghanlimjeon*. At the time when women were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e genre of female heroine novels like *Banghanlimjeon* describing a female protagonist, who wears men's clothes and realizes success in society, becomes a sign of violation of a taboo with own existence.

However, the space of deviation does not permit complete violation of

taboo. For reviewing the narrative of Banghanlimjeon, after Bang Kwan-ju violates a taboo, there always exists a punishment for violation. Banghanlimjeon shows that punishment is followed for a person violating a taboo, suggesting that Bang Kwan-ju got punished for violating the taboos. Consequently, the story warns about the violation of taboos and induces readers to follow orders and norms in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 narrative of Banghanlimjeon is that violating taboos is due to human desires, and is a work which demonstrates that ambivalence permits deviations through the life of Bang Kwan-ju, who violates taboos and yet makes the existing social order firm through punishment against violence of taboo.

Key Word : Female Heroine Novel, Banghanlimjeon, Taboo, Violation, Desire, Ambivalence

곽현희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specialpanda@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2월 12일 투고되어 2019년 3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3월 11일 게재 확정됨.
